<h1>나 혼자만 레벨업-45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u0cf0e8f2a9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5화</p>  
<p>안상민이 다시 고개를 꾸벅 숙였다.</p>  
<p>그리고는 현기철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.</p>  
<p>"현 대리, 계약서랑 도장 챙겨."</p>  
<p>"네!"</p>  
<p>준비가 후다닥 끝났다.</p>  
<p>두 사람이 급하게 사무실을 떠나고나자 백윤호가 옆의 남자 직원에게 슬며시 물었다.</p>  
<p>"뭐야? 무슨 일인데 안 과장이 저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야?"</p>  
<p>남직원은 자기 옆의 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그러나 여직원도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나도 몰라.</p>  
<p>여직원의 눈빛이 그리 말했다.</p>  
<p>'아오...'</p>  
<p>남직원은 곤란해하다 결국 뒷머리를 긁적이며 어렵게 대답했다.</p>  
<p>"그게... 저도 잘..."</p>  
<p>사장의 불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.</p>  
<p>의외로 사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.</p>  
<p>'부하들한테까지 숨겨가면서 뭔가하고 있다 이거지?'</p>  
<p>백윤호가 턱을 만지작거렸다.</p>  
<p>백호 길드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안상민 과장이었다.</p>  
<p>그런 사람이 저리 매달리고 있을 정도라면...</p>  
<p>'우리 안 과장이 또 간만에 한 건 올리시려나?'</p>  
<p>백윤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'무슨 커피가 이렇게 써?'</p>  
<p>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자판기 커피를 생각하고 주문한 에스프레소는 커피라기보다는 독한 한약에 가까웠다.</p>  
<p>그런 주제에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.</p>  
<p>'6천 원이면 캔커피가 몇 갠데...'</p>  
<p>이 쓰디쓴 놈이 캔커피 정도의 맛을 내려면 스틱 설탕을 몇 개나 들어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.</p>  
<p>딸랑.</p>  
<p>카페 문이 열리며 안상민과 현기철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.</p>  
<p>"여깁니다."</p>  
<p>진우가 손을 들었다.</p>  
<p>가게 안을 둘러보던 안상민과 현기철은 진우를 발견하고는 만면에 화색을 띠었다.</p>  
<p>꼭 제비가 물어 온 박을 막 켜기 시작한 흥부의 표정 같았다.</p>  
<p>"이렇게 빨리 다시 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"</p>  
<p>안상민은 그렇게 인사하며 진우의 맞은편에, 현기철은 눈인사 후 안상민 옆자리에 앉았다.</p>  
<p>진우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.</p>  
<p>쇠뿔도 단김에 빼라던가.</p>  
<p>안상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계약서부터 꺼냈다.</p>  
<p>"일단 조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."</p>  
<p>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티가 팍팍 났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단박에 거절했다.</p>  
<p>"오늘은 계약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."</p>  
<p>계약서를 꺼내던 안상민의 손이 멈췄다.</p>  
<p>한기철도 의아하다는 눈빛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굳어 버린 자세로 물었다.</p>  
<p>"그럼 저희 백호 길드엔 무슨 일로...?"</p>  
<p>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.</p>  
<p>제 발로 길드를 찾아온 대형 신인이 계약서를 보자마자 계약을 거절하다니.</p>  
<p>그사이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걸까?</p>  
<p>의문이 더해가는 가운데 진우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.</p>  
<p>"두 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"예?"</p>  
<p>안상민과 현기철의 반응이 비슷했다.</p>  
<p>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다가 다시 진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.</p>  
<p>당황한 두 사람과 대조적으로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저희 공격대가 C급 게이트를 싹쓸이 해대는 바람에 신입들 교육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죠."</p>  
<p>"네. C급 게이트 예약이 힘들다고 신인 헌터들을 상급 던전으로 데려갈 순 없으니까요."</p>  
<p>"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."</p>  
<p>안상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무슨 말씀이신지 도통..."</p>  
<p>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한 진우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.</p>  
<p>"저희가 예약해 둔 C급 게이트 공략 허가권 세 개를 백호 길드에 팔고 싶습니다."</p>  
<p>아-</p>  
<p>현기철이 짧은 탄성을 흘렸다.</p>  
<p>백호 길드의 두 사람은 이제야 진우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계약서를 도로 집어넣으며 의문을 표했다.</p>  
<p>"저희를 돕고 싶으시면 아예 예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습니까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"앞으로 당분간은 꾸준히 C급 던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서요."</p>  
<p>"그럼 오늘은 어째서...?"</p>  
<p>진우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당연히 곤란해 하고 있는 두 분을 돕기 위해서죠."</p>  
<p>이걸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?</p>  
<p>안상민의 머릿속 계산기가 막 돌아가려고 하기 직전 진우의 설명이 이어졌다.</p>  
<p>"물론 오늘만 특별히 양보해 드리는 겁니다. 저희도 계속해서 일을 미룰순 없어서요. 이 기회를 놓치시면 한동안 C급 게이트를 예약하기 힘드실 겁니다."</p>  
<p>마치 매진 임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홈쇼핑 진행자 같은 태도였다.</p>  
<p>'흐음...'</p>  
<p>안상민은 고민에 빠졌다.</p>  
<p>게이트는 수도권에만 생기는 게 아니다.</p>  
<p>정 안 된다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신입들을 훈련시키고 오는 방법도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랬다가는 해당 지역의 길드들이나 공대들에 불만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.</p>  
<p>그게 끝이 아니었다.</p>  
<p>호남의 명성 길드나 영남의 기사단 길드 같은 각 지방의 대형 길드들에게 얕보일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.</p>  
<p>신입 훈련도 자기네 구역에서 못 시키는 얼간이 길드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는 것이다.</p>  
<p>'흠... 오명이라곤 할 수 없나?'</p>  
<p>명백한 사실이니까 말이다.</p>  
<p>어찌됐든 다른 명문들에게 비웃음당하는 길드를 어떤 신인이 좋다고 찾아오겠는가?</p>  
<p>이래서 길드의 이미지는 중요했다.</p>  
<p>"좋습니다."</p>  
<p>긴 고민 끝에 안상민은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.</p>  
<p>"저희한테 허가권을 파시죠. C급 게이트 세 개면 딱 적당하네요. 전부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?"</p>  
<p>백호 길드도 돈은 많았다.</p>  
<p>하지만 유진건설과 자금력 대결을 해 봐야 좋을 것도 없었고, 무엇보다 진우와 사이가 틀어질까 봐 무리하게 나서지 않았다.</p>  
<p>그러니 진우가 알아서 게이트를 넘겨준다면 고마운 일 아닌가?</p>  
<p>헌데 가격까지 고맙진 않았다.</p>  
<p>"게이트 하나당 3억해서 전부 9억으로 하죠."</p>  
<p>"컥!"</p>  
<p>안상민과 현기철이 동시에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.</p>  
<p>"그건 너무."</p>  
<p>현기철이 끼어들려고 하자 안상민이 급하게 막았다.</p>  
<p>저번에 만났을 때도 그랬다.</p>  
<p>진우는 가격이 맞지 않자 미련 없이 이야기는 끝이라고 했다.</p>  
<p>어떻게 보면 굴러들어 온 기회인데.</p>  
<p>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한참 뒤에 C급 게이트를 예약하거나, 최악의 경우 지방에서 신입들을 훈련시키고 오는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'협상은 한번 해 보고 끝내야지.'</p>  
<p>이렇게 빨리 판을 접기는 아쉬웠다.</p>  
<p>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게이트 하나당 3억은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.</p>  
<p>요즘 유진호 팀이 허가권을 받아가는 가격은 평균 1억 가량.</p>  
<p>그 세 배를 지불하라는 건 억지였다.</p>  
<p>상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터.</p>  
<p>'일단 고가를 한 번 불러보고 절충할 생각이겠지.'</p>  
<p>그러고 보니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백윤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.</p>  
<p>-1억이든 2억이든 무조건 게이트를 예약하라 이겁니다!</p>  
<p>이건 사장의 허가나 다름없었다.</p>  
<p>제2관리과 직원 전부가 들었으니 나중에 발뺌하기도 힘들 테고.</p>  
<p>안상민은 침을 꼴깍 삼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.</p>  
<p>"3억은 저희로서도 힘든 가격이니 2억은 어떠십."</p>  
<p>"좋습니다."</p>  
<p>진우는 안상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른손을 내밀었다.</p>  
<p>안상민이 얼떨결에 그 손을 마주 잡았다.</p>  
<p>"이... 이걸로 된 겁니까?"</p>  
<p>"네. C급 게이트 개당 2억씩. 계좌로 넣어 주세요."</p>  
<p>어째 이야기가 너무 쉽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, 어쨌든 간에 안상민 입장에선 다행스런 일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마주잡은 진우의 손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며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"별말씀을."</p>  
<p>진우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이걸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일단 신입들 훈련 문제가 해결됐고, 진우와의 관계도 조금 더 좋아졌다.</p>  
<p>'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.'</p>  
<p>그래.</p>  
<p>이렇게 조금씩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거다.</p>  
<p>그러면 다 넘어오게 되어 있다.</p>  
<p>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고, 선물 주는데 모른 척하는 사람 없는 법이다.</p>  
<p>안상민은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진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"그럼 다음에 또 뵙죠. 아, 그리고 이거."</p>  
<p>진우는 쇼핑백 안에 넣어온 텀블러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.</p>  
<p>"잘 마셨습니다. 맛있더라고요."</p>  
<p>"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."</p>  
<p>현기철은 얼굴을 붉히며 쇼핑백을 받았다.</p>  
<p>그 길로 진우는 카페를 나갔다.</p>  
<p>안상민, 현기철 두 사람과 충분히 멀어진 진우는 유진호에게 연락을 넣었다.</p>  
<p>경쾌한 컬러링이 잠시 이어진 뒤.</p>  
<p>유진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-형님, 입금됐습니다. 진짜 6억 들어왔네요?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말없이 흐뭇하게 웃었다.</p>  
<p>거래는 성공적이었다.</p>  
<p>허공으로 날아갈 뻔한 공략 허가권을 사 온 가격의 두 배에 팔아치웠다.</p>  
<p>엄청난 이득이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.</p>  
<p>-형님,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? C급 게이트를 어디에 파신 거예요?</p>  
<p>"영업 비밀이다."</p>  
<p>-예?</p>  
<p>"잘 쉬고, 모레 보자."</p>  
<p>유진호가 당황하고 있을 때, 진우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뚝.</p>  
<p>그날 저녁.</p>  
<p>제2관리과 사무실.</p>  
<p>현기철은 급히 안상민을 찾았다.</p>  
<p>"과장님! 과장님!"</p>  
<p>"왜?"</p>  
<p>안상민이 모니터에서 시선을 뗐다.</p>  
<p>현기철은 다급한 얼굴로 핸드폰 화면을 가리켰다.</p>  
<p>"이것 좀 보세요!"</p>  
<p>"뭔데 그래."</p>  
<p>핸드폰 화면을 주시하는 안상민의 눈이 가늘어졌다.</p>  
<p>'이건...?'</p>  
<p>헌터들만 이용 가능한 헌터 협회 공식 사이트.</p>  
<p>신고가 접수된 게이트의 위치를 알려 주고 실시간으로 공략 허가권을 판매하는 거래소 화면이었다.</p>  
<p>"뭐야? 우리 구역에서 C급 게이트가 남아도네?"</p>  
<p>'예. 입찰된 가격도 전부 천만 원 이하 가격대입니다."</p>  
<p>"설마..."</p>  
<p>안상민은 아차 싶었다.</p>  
<p>"유진호 팀은 오늘 한군데도 예약을 안 했습니다."</p>  
<p>그러고 보니 어제 성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.</p>  
<p>-목요일엔 시간이 납니다.</p>  
<p>내일은 그 목요일이었다.</p>  
<p>유진호 팀은 처음부터 내일 레이드 예정이 없었던 것이다.</p>  
<p>그것도 모르고 비싼 값에 허가권을 사고 말았다.</p>  
<p>"허..."</p>  
<p>안상민은 실소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단서는 분명히 있었는데,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.</p>  
<p>본인의 실수였다. 결과적으로 그 실수 덕분에 사장님의 분노를 꺼트리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.</p>  
<p>"저희가 당한 것 같습니다, 과장님."</p>  
<p>마침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.</p>  
<p>띵동.</p>  
<p>발신자는 성진우였다.</p>  
<p>[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네요. 이걸로 절 미행하신 건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.]</p>  
<p>'쉽게 볼 수 없는 친구구만, 정말로.'</p>  
<p>안상민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.</p>  
<p>진우 말대로 이렇게 해서 남을 수 있었던 앙금이 사라진다면 자신이나 백호 길드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었다.</p>  
<p>최종적인 목적은 진우의 포섭이니까.</p>  
<p>오늘 쓴 금액 정도면 백호 길드에게 큰돈도 아니었고.</p>  
<p>"성진우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자."</p>  
<p>투자한 만큼 나오는 게 있다면 좋을 텐데.</p>  
<p>메시지를 들여다보던 안상민은 미소를 지으며 문자함을 닫핬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문자를 보낸 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주변은 숲.</p>  
<p>안전한 퀘스트 진행을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야산을 골랐다.</p>  
<p>현재 시간은 오후 5시 44분.</p>  
<p>이런 애매한 시간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고, 또 현재 위치는 등산로에서도 한참을 벗어나 있는 공터였다.</p>  
<p>'시작해볼까.'</p>  
<p>진우는 메시지 함을 열었다.</p>  
<p>[전직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메시지가 눈앞에 나타났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